

#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elf-Efficacy

장미선 · 이정연  
목포대학교 가정학과

Jang, Mi Seon · Lee, Jung Yeo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Since self-efficacy was suggested by Bandura(1977)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human behavior, preceding studies about self-efficacy are frequently related with children, and it is a main stream that only personal factors are chosen as related factors of these studies. Considering we don't have enough studies about family factors that reflect qualitative and relational factors of adolescents' home background, this study was aimed to seize the actual condition of self-efficacy meaning perceived and emotional faith about their own ability. These are our major concerns: 1. What kind of tendency does self-efficacy and appearance stress of adolescents, family functioning show? 2. How strong are relative influences of variables on self-efficacy of adolescents? This study was operated on July and August, 2002, aimed 378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Jeon-Nam, Mokpo area. 378 question sheets were used for analysis. Followings ar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imed students' average mark of self-efficacy was 2.09, which meant a normal level. And in low-ranked part, self-control-efficacy was the highest, and confid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was following. Furthermore, whole self-efficacy showed a little difference from the demographic factor of adolescents. In low-ranked part, however, confidence and self-efficacy showed a somewhat difference. As students grew up, confidence decreased, and male students showed higher self-control-efficacy than female ones. Second, appearance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degree had a strong relation with self-efficacy. Family functioning, had important interrelation not only with whole self-efficacy but also with low-ranked part of self-efficacy. In low-ranked part, self-control-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were proportional to the family functioning degree. From these results, we can find that the appearance stress was an actual factor that affected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ts, and their self-efficacy was strongly related with family functioning degree. Accordingly, affirmative emotion in family, harmonic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sharing housekeeping works had an immediate influence on elevation of self-efficacy.

**Key words** : self-efficacy, appearance stress, family functioning

## I. 서론

### 1.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시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2-13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추상적 사고 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성격의 결정적인 형성기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자기 행동의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인지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방식은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라

Corresponding author : Jang, Mi Seon  
Tel : 061)450-2510  
E-mail : skyjms@mokpo.ac.kr

할 수 있다(김의철·박영신·양계민, 1999).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왔다. 청소년집단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김의철·박영신, 1999a; 박영신·김의철·김영희·민병기, 1999; 박영신·김의철·정갑순·이상미·권혁호·양계민, 2000)에서도 직접·간접효과가 명백히 검증되었다.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상 자아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때이며(장병림, 1996), 급격한 신체의 성장, 사회성의 발달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이다(송인섭, 1989). 때문에 청소년기의 신체적 만족 혹은 불만족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신체상의 차이가 적을 수록 정서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된다(Horn & Gurel, 1981).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애쓰는 시기로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측면이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따라서 외모가 갖는 중요도도 다른 시기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외모에 많은 비중을 둬으로써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심지어는 외모를 비판하고 자살하는 삶의 왜곡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외모스트레스가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을 좌우하는 실제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형성·발전시키게 되고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이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문혁준, 1999).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차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우희정·이숙, 1994).

이렇듯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변인이 많이 다루어져 왔고,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의 질적·관계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자기효능감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외모스트레스, 가족기능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추상적 사고 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말하며, 이 시기 동안에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장병림, 1996).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 변화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의 단계이므로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Erikson(1959)은 청소년기를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란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개인의 정체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가정하였다.

먼저 신체적으로 이 시기는 생식 기능과 일차적 성기관이 성숙되고, 2차적 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급격한 생리적 성장기인 '사춘기'로부터 시작된다. 사춘기는 약 2년동안 지속되고 각 개인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생식할 수 있는 시점에서 끝난다.

청소년기 성장 급등은 신장의 갑작스런 증가로 나타나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로 인한 외모는 청소년의 자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십대들

은 자신의 다른 어느 면보다 신체적 외모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신체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지적 특성의 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지능은 12-14세 까지 대체로 급상승하다가 그 이후에 발달속도가 완만해지며, 17-18세 경에 정점에 달한다. 청소년기는 지능의 우열에 의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능발달이 지체된 청소년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사회·심리적 특징은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 이유기'의 현상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타인이나 외계 사물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감춰져있던 내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아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며,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그들은 아동기의 무조건적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여,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교우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깊이가 점차 증대되고, 기성세대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나 반항에서 벗어나 합리적 비판과 논리적 대항의 자세를 형성하게 된다(한상철, 1998).

## 2. 자기효능감

### 1) 자기효능감의 정의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의 행동에서 개인적요인, 환경적요인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중시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외적 자극의 영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인지적 제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여러 인지적 과정을 대표하는 중심개념이 자기효능감이다(박은영, 1999).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저서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에서 논의된 것으로, 여타 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영역에 걸친 다양한 연구들로 나타났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행동은 결국 행위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Schunk(1984)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때로는 긴장되는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데 요구되는 행동에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한다. Wood, Mento 그리고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Kanfer 그리고 Hagerman(1981)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활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장차 능력에 대한 복잡한 인지적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Gellath와 Meyer(1992)는 자기효능감을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안순자(1997)는 자기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능력있는, 효율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Milgram 등(198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지각된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박은영(1999)은 자기효능감은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했다. 이와같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기준에 의하여 자신이 평가하는 개념이므로 객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형성될 수 있는 정의적 특성으로(유효현, 2000), 특정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점에서 인지적이면서도 정의적인 특성을 지닌 개념이다(이정연·이창숙, 2002).

본 연구자는 Gellath와 Meyer(1992)의 정의에 근거하여 자기효능감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나 특정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인지적 신념이라고 본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

감의 하위영역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아동기의 부모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의 관계를 연구한 문혁준(1999)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연구한 차정은(1997)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도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진아(2000), 노호은(2000), 전귀연(200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하위영역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최영선(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자아존중감, 친구사귀는 능력, 행동적절성, 인지적 학습능력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전길양·김정옥(2000)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하위영역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1997)의 척도를 채택하여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도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2)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들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자아존중감(self-esteem), 그리고 자기역량지각(perceived competence)등을 들 수 있다. 자아개념은 특정한 과제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상황특수성이 있는 자기효능과는 달리 포괄적이며, 질문문항도 행동과 관련된 능력과 자아 가치감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아개념 판단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비교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기효능판단은 준거적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특정한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지각된 성격 또는 특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며 자신의 속성이나 단면에 대하여 은연중에 배정한 자기평가의 총체라 정의된다. Sherer와 Maddux(1982)는 자아존중은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 즉 자신의 속성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행동이 개인의 가치기준과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자기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자기역량지각은 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어떤 과제에 대한 적합성을 의미하고, 역량의 다양한 정의로 사용되는 능력은 주어진 과제의 수행을 가능

케 하는 일련의 숙련적인 면(a set of skill)을 말하며 역량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역량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Ogbu, 1981).

## 3)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기효능감이 지적 수행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효능감은 동기를 부여하고 전략적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인 성취에 기여한다.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낙태수술에도 잘 적응했고(Mueller & Major, 1989), 고통을 참는 인내력이 많고(Litt, 1988),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ndura 등, 1988), 어려운 과제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ltz, 1982). 또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공포, 비만, 흡연, 심장질환 등의 다양한 장애로부터의 회복과 치료에 성공적이라고 보고되며(Holahan 등, 1996), 특히, 정서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ndura, Hardy & Howells, 1980; Bandura & Schunk, 1981).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끈기 있는 인내심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다. 이에 반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거나,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하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윤운성, 1998). 또한 환경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서적 흥분이 높고 심한 무력감에 빠지며 문제나 상황을 실제보다 더 어렵게 인식하게 된다(Beck, 1967).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박진아(2000)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핀 노호은(200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두 연구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을 더 높게 지각했다.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윤운성(1999)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학년별,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된 변인들 중 학교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학력에 대한 기대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심리적 적응 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3. 외모스트레스

#### 1) 외모스트레스의 정의

청소년기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윤진, 1993). 그러나, 신체적인 외모나 매력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평가를 형성하게 된다(Festinger, 1954).

외모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이금룡(1998)은 구체적인 신체적 매력(예: 얼굴, 몸매, 키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외형상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외모를 지칭했다. Berscheid와 Walster(1978)는 신체적 매력을 '타인, 혹은 타인의 상징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개인의 경향성 혹은 성향' 이라고 정의했고 고석주와 정진경(1992)은 '한 사회에서 이상화된 기준에 맞는 외모가 갖는 특성으로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외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모는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서(문영보, 1991), 외모에 대한 정보는 인상형성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김인태, 1996).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외모스트레스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하며, 외모스트레스를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억압정도'로 규정

한 이현옥·박경애(2000)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외모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외모스트레스와 관련된 하위변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성 소비자의 외모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이현옥·박경애(2000)는 외모만족도, 외모관심, 외모스트레스를 하위영역으로 구성하고, 양계민(1993)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 신체적 매력의 중요도,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하위영역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김재숙·이미숙(2001)은 지각적인 신체이미지와 태도적인 신체이미지를, 전귀연(2001)은 외모평가, 외모지향, 체중관심을, 김광경·이금실·정미실(2001)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외모관련변인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계민(1993)의 척도 중 단일척도인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척도만을 채택하였다.

#### 2) 외모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Festinger(1954)에 의해 제시된 사회적 비교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 태도, 외양이나 행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욕구를 지니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타인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신체매력,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리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Lennon & Rudd, 1994).

전정재(1998 ; 27)는 최근 『힘든 10대 어떻게 잘 넘길까』라는 저서에서 “아이들의 유난스러운 외모관리는 10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갈등요인의 하나”라며 “청소년들의 외모집착은 부모의 대처에 따라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가는 유혹의 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신체적 외모가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양계민(1993)의 연구에서는 외모가 심리적으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과 외모관련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의 관계를 통해 성별, 연령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여자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했다. 이명희·이은실(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자신의 외모가 훌륭하다고 느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접촉을 하게되고 자신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이금룡(1998)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남학생들보다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학교성적, 외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신체적 매력 높을수록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도 높으나(Adams, 1977) 신체적 매력과 자신의 몸에 대한 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훨씬 더 크고(Lerner & Karabenick, 1974), 자신을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녀들이 자신의 용모에 만족하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고 하였다(Simmon & Resenberg, 1975). 김의철·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할수록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증가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또한 스트레스 생활사건 중 외모스트레스는 심리변인인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외모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입증한 선행연구 결과들로부터 외모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서 인구학적변인 외에 외모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 4. 가족기능

##### 1) 가족기능의 정의

가족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를 뜻한다. 김주수(1982 : 유영주 등, 2001, 재인용)는

“가족의 기능이란 하나의 소집단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이 무엇이나”를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오명근·이종수(1989 ; 216)는 “사회를 존속시키고 가족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가족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라고 했다. 이로 볼 때 가족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행위로서의 가족행동을 의미한다. 즉,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존속이나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다(유영주 등, 2001).

가족의 기능은 고유기능, 기초기능, 부차적기능(파생기능)으로 나누고 또 이들을 각각 대내적인 기능(개별적 기능)과 대외적인 기능(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유영주 등, 2001 ; 32).

##### 2) 가족기능에 관한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 중 대내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가족기능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Bandura(1977)에 의하면 초기 자기효능감 경험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했다. 아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기효능감 경험이 사회적 혹은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Bandura, 1977). 부모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고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효능감 발달의 중요한 정보원인 다양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Ruddy & Bornstein, 1982).

초기 아동발달 이론에서는 삶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nsworth(1982)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에 있을 때 새로운 기술의 습득, 환경에 대한 탐험, 그리고 자신감의 발달이 촉진된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는 아동이 위협과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Egeland, Carlson, & Sroufe, 1993). 부모는 양육과정을 통해서 아동에게

감정적인 지지와 지침을 제공해 주고, 의미있는 가치와 기준을 조성해 주고, 건설적인 대처 방식을 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며,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양육 과정은 아동이 신뢰감,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성취경험을 한 아동들은 성취경험을 하지 못한 아동들보다 더 높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Ramey, McGinnes, Cross, Collier, & Barrie-Blackely, 1982).

이와 같이 초기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정서적인 가족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Maccoby와 Martin(1983)에 의하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해온 사람보다 더 강한 자신감과 독립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귀연(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 수록 여자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향숙·장윤옥(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에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취하는 경우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Hoffman등(1988)은 부모와 동료의 지지가 사춘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연·이창숙(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와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숙·장윤옥(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차이를 보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미루어볼 때,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가족변인으로 가족기능,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의 지지 등이 관련변인으로 축출되었으나 이 중에서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기능척도의 하위영역에 포함하여 가족기능만을 관련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며,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성별, 학력, 연령, 외모스트레스, 가족기능, 부모학력·연령·직업, 경제적 수준 등을 설정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남 목포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외모스트레스, 가족기능으로 이루어진 이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로, 374부의 질문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외모스트레스 척도

외모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진 양계민(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모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내용을 담은 이 척도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되었으며 총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4$ 이다.

##### 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김아영(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측정 도구로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도 등 3개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나임선호도 각각의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각각 .72, .76, .81이며 전체 신뢰도  $\alpha = .82$ 의 값을 나타냈다.

##### 3) 가족기능도 척도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Tavitian등(1987)이

개발한 5개 하위요인 구조를 가진 가족기능 척도 (Family Functioning Scale) 40문항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긍정적인 가족정서, 가족의 사소통, 가족행사참여, 가족일 나누기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재구성한 최희진(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26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었다.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0.90$ 이었다.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 3. 자료분석방법

빈도, 평균, 표준편차, 단순상관관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분석은 SPSSWIN

### 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외모스트레스, 가족기능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된 결과는 다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151	40.4	연령	11~13세	85	22.9
	여자	223	59.6		14~16세	158	42.7
	계	374	100.0		17~18세	127	34.4
학력	중학교	166	44.4		계	370	100.0
	고등학교	208	55.6	아버지 나이	40세 이하	120	32.6
	계	374	100.0		41-45	193	52.5
아버지 나이	40세 이하	38	10.3		46-50	45	12.2
	41-45	171	16.3		51세 이상	10	2.7
	46-50	122	33.1		계	348	100.0
	51세 이상	38	10.3	아버지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18	5.3
계	369	100.0	중학교 졸업		56	16.4	
아버지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15	4.3		고등학교 졸업	212	62.2
	중학교 졸업	33	9.6		전문대이상 졸업	55	16.1
	고등학교 졸업	184	53.3		계	341	100.0
	전문대이상 졸업	113	32.8	아버지 직업	유무	216	67.3
	계	345	100.0		무	105	32.7
아버지 직업	단순노무직	20	5.7		계	321	100.0
	피고용기능직	46	13.1	경제수준	하	49	13.5
	자영직	91	25.8		중	232	63.7
	사무직	98	27.8		상	83	22.8
	전문직, 관리직	59	16.8		계	364	100.0
	없다	4	1.1		계		
	기타	34	9.7				
	계	352	100.0				

※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표2>과 같다.

표 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경향 (N=364)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3.04	.71
자기조절효능감	3.22	.57
과제난이선호도	2.87	.83
전 체	3.09	.48

<표2>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서 3.09로 보통 정도 나타났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3.04, 자기조절효능감은 3.22, 과제난이선호도는 2.87을 나타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철수(200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전체평균이 2.98, 하위영역별로 자기조절효능감(M=3.19), 자신감(M=2.97), 과제난이선호도(M=2.59)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평균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외모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 (N=368)

	평균	표준편차
외모스트레스	2.48	.88

즉, 외모스트레스는 평균 2.48로 5점 만점에서 중간점수인 3점과 가까운 수준을 나타내어 본 조사대상자는 보통 수준의 외모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기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4>과 같다.

표 4. 가족기능의 일반적 경향 (N=361)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인 가족정서	3.67	.70
가족의사소통	2.70	.96
가족행사참여	2.23	.79
가족일 나누기	2.86	.86
전체	3.24	.63

즉, 전체적인 가족기능은 평균값 3.24를 나타내어 중간수준을 나타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긍정적인 가족정서는 3.67, 가족의사소통과 가족일 나누기는 각각 2.70, 2.86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가족행사참여는 2.23으로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즉, 본 조사대상의 전체적인 가족기능 수준은 보통의 값을 나타내고 하위영역별로 긍정적인 가족정서, 가족일 나누기,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참여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련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관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관련변인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결과는 <표5>와 같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경제수준( $r=.26$ ), 가족기능( $r=.26$ )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성별( $r=-.14$ ), 외모스트레스( $r=-.16$ )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가족기능이 잘 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가족기능은 성별( $r=-.18$ ), 외모스트레스( $r=-.36$ )에 따라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경제수준( $r=.13$ )에 따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기능이 높고, 외모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낮은 가족기능을 나타내며,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기능은 외모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가족기능이 잘 되지 않을수록 외모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스트레스는 경제수준과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것은 경제수준이 높을 수록 외모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양계

표 5.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sup>a</sup>	1.00											
2. 연령	-.33**	1.00										
3. 학력	-.30**	.94**	1.00									
4. 부모교육 정도	-.05	-.05	-.06	1.00								
5. 모교육 정도	.00	-.12	-.13*	.58**	1.00							
6. 부직업 <sup>b</sup>	.05	-.04	.04	.40**	.29**	1.00						
7. 부직업 <sup>2</sup>	.08	.06	.17*	-.11	-.09	-.54**	1.00					
8. 모직업 <sup>c</sup>	-.00	-.03	-.02	-.02	-.05	-.24**	.18**	1.00				
9. 경제수준	.05	-.19**	-.22**	.15**	.17**	.20**	-.10	-.03	1.00			
10. 외모스트레스	.09	-.08	-.09	-.03	-.06	-.03	-.04	-.00	-.17**	1.00		
11. 가족기능	-.18**	.04	-.07	.06	.03	.04	-.02	.06	.13*	-.36**	1.00	
12. 자기효능감	-.14**	-.07	.03	.10	.04	.08	-.04	-.08	.26**	-.16**	.26**	1.00

\*p<.05 \*\* p<.01

a : 성별을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b : 부직업1은 단순노무직을 0, 자영업직을 1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부직업2는 단순노무직을 0, 사무직,전문직을 1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c : 모직업은 없는 경우를 0, 있는 경우를 1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민(1993), 고애란·김양진(1993), 김의철·박영신(1999)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연령이나 부모교육정도, 부모직업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외모스트레스, 가족기능과 관련성이 거의 없었다.

이 중 청소년의 학력과 연령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r=.94, p<.01$ )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귀분석에서는 학력변인을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외모스트레스 부모교육정도, 모교육정도, 부직업 1, 부직업 2, 모직업유무, 가정의 경제수준 그리고 가족기능 등 10개 변인을 투입하였다.

잔차분석을 통하여 회귀분석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DW)검증치가 각각 1.93-2.01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오차간의 자기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F값은 각각 12.67-23.88 사이값으로 유의한 값( $p<.001$ )을 가져

본 연구에서 채택한 회귀식이 회귀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6>과 같다.

먼저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beta=-.23, p<.001$ )과 외모스트레스( $\beta=-.36, p<.001$ )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연령이 어릴수록, 외모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신감 수준이 높았다. 여기에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1변인은 외모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이들 2개 변인의 설명력은 약 17%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증명한 박진아(2000), 노호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난 윤운성(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성별( $\beta=-.14, p<.05$ )과 가족기능( $\beta=.39, p<.001$ ), 두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효

표 6.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364)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 선호도		전체	
	b	β	b	β	b	β	b	β		
성별 <sup>a</sup>										
연령	-.09	-.23***								
외모스트레스	-.29	-.36***								
가족기능			.35	.39***	.31	.24***	.22	.28***		
F	23.88***		19.17***		12.67***		19.37***			
R2	.17		.15		.05		.15			
D-W	1.93		2.01		1.97		1.95			

\*p<.05, \*\*p<.01, \*\*\*p<.001

a : 성별을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처리한 가변수이다.

능감이 증가했다. 이 중 가족기능이 제 1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의 설명력은 약 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운성(1999), 박진아(2000), 노호은(2000)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과제난이선호도는 10개의 독립변인 중에서 유일하게 가족기능(β=.24, p<.001)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가족기능이 높을 수록 과제난이선호도 수준이 증가했으며 설명력은 약 5%였다.

전체적인 자기효능감은 다른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결과, 외모스트레스(β=-.24, p<.001)가 낮을수록, 가족기능(β=.28, p<.001)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약 15%의 설명력을 가졌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가족기능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정연·이창숙(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지, 가족기능 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변인은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과 척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정연·이창숙(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제 1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이 제 1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가족기능이 중요한 변인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스트레스 생활사건 중 외모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김의철·박영신(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 V. 논의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전체적 자기효능감은 성별과 연령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자신감이 낮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동등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자신감을 키워간다는 Printrich와 De Groot(1990)의 연구 결과와 모순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남아선호 사상 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예전과는 달리 한 가정 당 자녀수가 한 두명으로 줄어들면서, 아들, 딸 구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졌으며, 정보화, 지식화 사회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여러 전문 직종은 고정된 남녀 역할이

아닌 각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는 여성에게 자기 발전의 기회와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은 여성에게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외모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외모스트레스가 적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을 나타내는데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의 영역과 많은 관련성을 가졌다. 이는 부족한 자신감을 걸치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관련변인 중 가족기능과 많은 관련성을 가졌다.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은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가족기능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자신감을 제외한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선호도를 가족기능에 따라 큰 변화값을 가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개인변인뿐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변인을 함께 다룬 결과,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설명력이 15% 정도로 선행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표집대상도 제한적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관련변인으로 성별, 학력, 연령, 외모스트레스만을 투입하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력 있는 학교환경변이 제외되었는데, 다음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있어 제 2의 환경인 학교환경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고석주 · 정진경 (1992). 외모와 억압 :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고애란 ·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김광영 · 이금실 · 정미실 (2001).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9), 95-101.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주직심리학회. 통계학술대회 논문집*, 51-64.
- 김의철 ·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 특성의 형성 :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 (1999). 자기효능감의 인간행동. *교육과학사*.
- 김인태 (1996). 신체적 매력에 대한 지각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숙 · 이미숙 (2001).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5), 957-968.
- 노호은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 · 이상미 · 권혁호 ·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5(1), 94-118.
- 박영신 · 김의철 · 김영희 · 민병기 (1999). 초등학교 생활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쫓거 관계분석 :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5(1), 57-76.
- 박은영 (1999). 자기 성장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취업 면접태도에 미치는 효과.

-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0).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1989). 인간 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각.
- 신향숙 · 장윤옥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안순자 (1997).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 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인과 모형 탐색. 한국아동학회지, 15(1), 71-90.
- 유영주 외 2인 (2001). 가족관계학, 교문사.
- 윤운성 (1998). 자기효능감의 관련변인 탐색.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14(2), 213-238.
- 윤운성 (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67.
- 윤진 (1993).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 도서출판 서원.
- 이금룡 (1998). 외모가 청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11호.
- 이명희 · 이은실 (199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노년여성의 외모관심과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6), 1072-1081.
- 이정연 · 이창숙 (200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 이현옥 · 박경애 (2000). 여성소비자의 외모만족도 : 외모유형과 외모의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7), 93-102.
- 장병림 (1996). 청년심리학, 서울 : 법문사.
- 전귀연 (2001). 여자청소년이 가지는 광고태도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51, 167-190.
- 전길양 · 김정옥 (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55-170.
- 전정재 (1998). 힘든 10대 어떻게 잘 넘길까, 서울 : 시공사.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선 (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진 (1998). '가족기능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 척도(FFS)에 기초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1998). 청소년학개론, 중앙적성출판사.
- Adams, G. R (1977).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Human Development*, 28, 217-239.
- Ainsworth, M. D. S. (1982). Attachment :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arkes, C. & Stevewnson-Hinde, J.(Eds.). New York : Basic Book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Hardy, A. B., & Howells, G. N. (1980). Tests of the generality of self-efficacy the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39-66.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ndura, A., Cioffi, D., Taylor, C. B., & Brouillard, M. E. (1988). Perceived self-efficacy in coping with cognitive stressors and opioid ac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479-488.
- Beck, A. T. (1967).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 York : Harper & Row.
- Berscheid, E., & Walster, E. H.(1978). Interpersonal attraction(2nd ed.). Reading, Mass :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Eq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23-129.
- Feltz, D. L.(1982). Path analysis of the causal elements in Bandura's theory of self-efficacy and an anxiety-based model of avoidanc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64-78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hips*, 7, 117-140.
- Gellathly, I. R., & Meyer, J. P. (1992). The effects of goal difficulty on physiological arousal, cognition,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94-704.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Hoffman, M. A., Ushpoz, V., & Levy-Shiff, R.(1988).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307-316.
- Holahan, G. K., et. al.(1996). Self-efficacy: physical decline, and change in functioning in community-living elders: A prospective study. *The Gerontologist*, 51b(5), s183-s190.
- Kanfer, H. H., & Hagerman, S. (1981).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P. Rehm(Ed.), Behavior therapy for depression :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New York : Academic.
- Lennon, S. & Rudd, N.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2), 94-117.
- Lerner, R. M., & Karabenick, S. A. (1974). Physical attractiveness, body attitudes, and self-concept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625-629.
- Litt, M. D. (1988).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 Cognitive mediators of pain tole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49-160.
- Maccoby ,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101. New York : free press.
- Milgram, N. A., Sroloff, B., & Rosenbaum, M. (1988). The procrastination of everyday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97-212.
- Mueller, P., & Major, B.(1989). Self-blame,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59-1068.
-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 A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 413-429.
- Pr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Ramey, C. T., McGinness, G. D., Cross, L., Collier, A. M., & Barrie-Blackley, S. (1982). The abecedarian approach to social competence: Cognitive and linguistic intervention for disadvantaged preschoolers. In K, Borman (Ed.), *The*

- social life of children in a changing society. Hillsdale, J. J. : Erlbaum.
- Ruddy, M. G., & Bornstein, M. H. (1982). Cognitive correlates of infant attention and maternal stimulation over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3, 183-188.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herer, M., Maddux, J.(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663-671.
- Simmons, R. G. & Resenberg, F. (1975). Sex, sex roles, and self-im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22-258.
- Tavitian, M. L., Lubiner, J., Green, L., Grebstein. L. C., & Velicer, W.F.(1987).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91-204.
- Wood, R. E., Mento, A. J., & Locke, E. 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ator of goal effec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416-425.
- (2003. 7. 28 접수; 2003. 8. 29)